

인터뷰 · 〈아시아 여성인권회의〉 참석차 내한한 야요리 마쯔 씨

“일본에 온 10만 매춘여성 대부분이 필리핀, 태국, 한국의 여성들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여성이슈 주로 써 와, 국제적 연대 통한 여성인권 옹호 노력도

국제적인 여성운동가이자 30년간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일하면서 ‘여성의 시각’으로 비판적 기사를 써온 야요리 마쯔(松井耶依·57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 씨가 아시아 여성인권회의 주최로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여성인권회의〉 참석차 한국에 왔다. 야요리 마쯔 씨는 국내 번역서 여성해방이란 무엇인가(백산당)의 저자로 70년대 초 시작된 일본의 기생관광문제는 물론 태국의 노수복 할머니를 주제로 인터뷰, 정신대문제를 본사회에 고발한 주인공이



기난한 나라의 여성들을 사고 파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80년초부터는 아시아 여러나라의 여성들이 일본으로 팔려와 현재 일본에서는 10만명에 달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몸을 팔고 있습니다.

몸을 팔려온 아시아 여성들의 70%가 필리핀 여성이며 나머지는 태국과 한국에서 온 여성들인데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이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나 성격도 이런 여성들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의 기독교계 여성들이 모여 아시아 여성들의 성적 유린을 여성의 기본인권문제로 제기하고 논의 합니다.

기생관광은 물론이고 인신매매, 매춘에 관한 각국의 실태를 발표하면서 서로 협력할 점을 찾으려는 귀중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일본에 원정투쟁을 가서 승리했던 한국의 수미다노조를 알고 계신지요. 이와 관련해 한국 여성들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다면.

“제가 직접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수미다노조의 한국여성노동자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용기 있는 투쟁을 담은 화보도 만들어졌고 저도 이 화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아주 강하고 용기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유교의 전통과 성차별적 가부장제도와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에이즈에 감염됐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61년 여성에게는 처음 언론사 응시자격을 줬던 아사히 신문에서 유일한 여성기자로 첫발을 디딘지 10년 후의 일입니다. 막 여성해방운동이 일어났던 70년대 초 특파원으로 미국에 가서 결국은 여성해방론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첫 1

0년간은 의도적으로 여성분야나 여성이슈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언론사에서 기자로 끝까지 살아 남으려면 먼저 기자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뒤엔 과감하게 ‘여성의 시각’에서 정치·사회면 기사를 썼습니다.”

—매춘을 하거나 기생관광의 희생자로 고통을 받는 많은 아시아 여성들에게 관심을 돌리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81년부터 85년까지 싱가포르 주재 아시아 특파원으로 18개국을 돌면서부터입니다. 일본인들의 기생관광은 물론 여성의 성을 팔 목적으로 자행되는 국제적인 인신매매 역시 심각한 여성문제이며 정치·경제적 문제라고 봅니다. 부유한 나라의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지난 9일 서울 중구 정동 공회 성가수녀원에서 만나기를 나눴다.

—77년에는 아시아 여성협회(Asia Women's Association) 창설하신 걸로 아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요.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적 대외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성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뉴스레터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기도죠. 최근 진행중인 연구프로젝트의 하나가 태국의 에이즈 성에 관한 것인데 태국에는 재 10대 매춘부들의 70%가